

摘要

臺灣與韓國分別在 1962 年及 1961 出現了首家電視台，其後不只是硬體方面，電視所帶來的文化衝擊也有類似的發展，在臺灣，「老三臺」臺視、中視、華視曾經三分電視市場，連帶地帶來了龐大的廣告收入，但隨著有線電視的合法及後來的衛星電視等新興媒體的加入，無線電視的地位已不如以往，甚至面臨邊緣化的危機。在韓國，同樣有「放送三社」之稱 KBS、MBC、SBS，雖然同樣也因為市場開放、經濟獨立的趨勢下，漸漸失去獨佔的市場，但相較臺灣而言，韓國無線電視仍佔居韓國電視業的主流市場與優勢收視率，持續扮演影響電視觀眾不可或缺的角色之一。

公共電視的部分，臺灣及韓國更是出現了極為不同的情況，韓國在 1973 年開始發展公共電視，臺灣卻晚了 20 多年，加上資金、規模等等條件的落後，公共電視在臺灣的地位及影響力遠遠不及於韓國。不管在臺灣或韓國，電視產業都隨著時代的變遷而持續調整，在講求民主化及追求市場競爭之下，各自採取了不同的因應措施及政策，負有文化及經濟政治等多重責任的電視，走向了不同的方向，尤其在市場開放、消費者主義的趨勢下，公共電視給予人民公正、公平的資訊，及身為「看不見的手」之監督角色是永遠不變的！

因此在大環境的改變之下，公共電視如何能擺脫政治、廣告主等的控制，同時又能和崛起的商業電視並駕齊驅，是最為重要的。

本論文主要以台灣及韓國學術界、各行政機關，及各大電視台的資料為參考，比較兩者的公共電視發展及現狀，內容分為六章節。第一章為「緒論」；第二章為「臺灣與韓國公共電視的出現及發展」，此章分為兩部分，分別敘述電視的發展，以及臺灣與韓國各自的公共電視發展歷程；第三章為「臺灣與韓國公共電視的經營型態比較」，此章分為三部分，首先敘述了公共電視的角色及型態，然後依序比較臺灣與韓國公共電視的組織型態、相關法令及資金來源；第四章為「臺灣與韓國公共電視的節目比較」，此章分為三部分，第一部份比較臺灣與韓國公共電視的節目編制，其餘兩部分則分別比較臺灣與韓國公共電視的手語節目及教育節目；第五章為「臺灣與韓國公共電視的難題及改革方向」，此章分為兩部分，第一部分是敘述臺灣與韓國公共電視各自面臨的難題，第二部分則又分為五個小章節，針對難題提出五個改革的方案；最後第六章為「結論」。

在尚無有關臺韓公共電視之專題比較研究的現況下，本論文針對臺灣及韓國的公共電視加以研究，並整理、提出兩者的優缺點與改善意見，希望不論臺灣或韓國的公視，除了能繼續保持各自的特色外，亦能吸收彼此的優點來改進缺失。



개요

한국과 대만은 각기 1961년, 1962년에 TV 방송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에 설비와 기술발전뿐만 아니라 문화 방면 등에서 끼친 영향도 비슷하다. 대만에서, 지상파 TTV, CTV, 그리고 CTS가 TV 방송 시장을 독과점하여 어마어마한 광고수입을 얻었다. 90년대 유선 TV 방송과 케이블 TV 방송이 들어오면서 하루아침에 많은 광고수입을 잃으면서 이전의 전성시대는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반면에 한국의 방송 3사도 시대에 따라 시장을 더 이상 독과점 할 수 없지만 아직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

공영 TV 방송으로 보면 한국과 대만 서로가 더욱 다른 모습으로 나온다. 한국은 1973년에 처음으로 공영 TV 방송이 출범이 된 반면에 대만은 1998년에야 출범이 되었다. 더군다나 자금, 규모 등 기본조건이 부족하여 공영 TV 방송의 지위는 한국보다 많이 낮다. 한국에서나 대만에서, TV 방송이 시대에 따라 꾸준히 발걸음을 조정하고 있다. 민주화와 이윤추구의 흐름에서 각기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공영 TV 방송은 공정, 공익, 공평 등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 대신 사회를 감독하는 역할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다.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영 TV 방송이 정치, 광고주 등에서 벗어나 상업 TV 방송들과 어떻게 경쟁하는 것이야말로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본연구는 한국과 대만 공영 TV 방송을 비교하고 나서 각기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본다. 한국이나 대만 공영 TV 방송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